

지역사회 목소리 귀 담은 靑추진단

“靑문화도시 지원포럼 콘텐츠안 구체성 없다” 배척

회의 시작전 비판 문건 배포 물의... 첫 워크숍 파행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과정에 지역 문화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워크숍이 파행으로 끝났다.

추진단이 지원포럼의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방안(광주일보 6월21일 1면)을 비판하는 문건의 배포를 방지한다며 일부 공무원이 지원포럼의 콘텐츠 구축방안을 깎아내리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한 탓이다.

광주시와 추진단에 따르면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방안'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지원포럼 정동채 회장 등 위원, 김종률 추진단장, 이영철 아시아문화전당 전시예술클럽,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이 감독이 아시아문화개발위원

제직시 수립한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과 관련, 지원포럼에서 대안격으로 마련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지원포럼의 콘텐츠 구축방안은 최근 유진홍 장관이 "지역사회에서도 문화전당 콘텐츠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회의 시작전 이영철 전시예술클럽이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 문건을 지원포럼 등 회의 참석자들의 책상에 배포, 생산적인 만남이 되기 힘든 분위기로 흘렀다. 문건내용은 지원포럼이 기존 콘텐츠의 한계로 분석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추진단은 사실상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지원포럼과의 첫 만남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문건의 배포를 제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추진단 공무원의 노골적인 비판성 발언은 지원포럼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다. 박모 사무관은 "지원포럼의 콘텐츠 안에 대해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구체성이 없고 이영철 원장이 만든 계획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지원포럼의 콘텐츠 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한 교수는 "지역을 위한 총정의로 만든 콘텐츠를 폄하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원 포럼의 한 관계자는 "광주지역 사회에서 마련한 콘텐츠안을 보는 추진단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처음부터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콘텐츠를 추진단에서 깎아뺏겨야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이 광주지역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과연 광주지역을 인정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실언으로 워크숍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정부, 경제자유구역 군살 빼고 집중 육성

제1차 기본계획 확정... 신안 일대 추가지정 무산

정부가 광안만권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8곳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정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 업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광안만권의 경우 석유·철강 등 기존 산업만 지정돼 있고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은 모두 빠져있다.

3일 정부가 내놓은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8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자유구역별로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8개 구역(총 면적 448km)이다. 하지만 미개발률을 보면 대구·경북 60%, 광양만권 52.2%, 새만금·군산 50%, 부산·진해 38.1%, 인천 29.6%이다.

특히 황해는 전체가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어 8개 구역 가운데 가장 부실한 것으로 꼽혀 내년 8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 퇴출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300km 이하로 줄이고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40조원(2012년까지 5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 특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자유구역별로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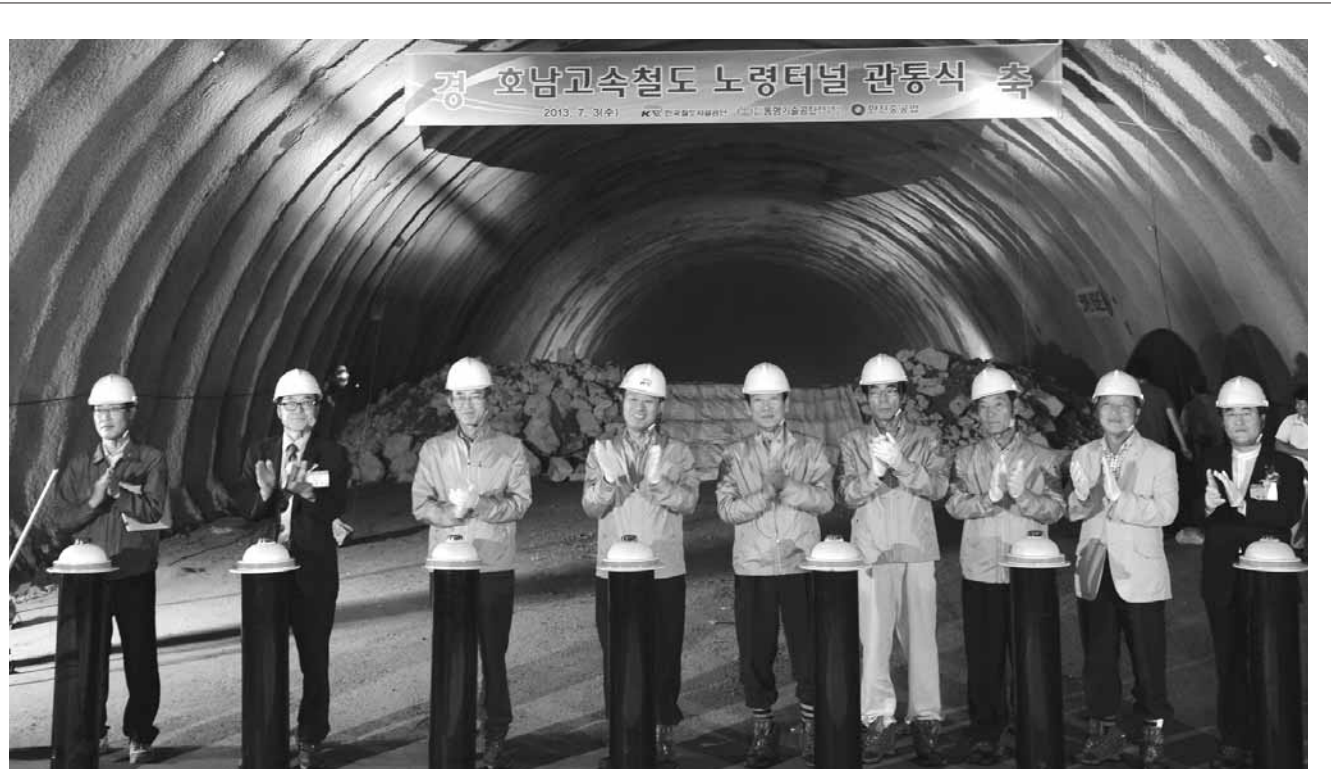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인천은 항공물류·바이오·지식

서비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첨단수송·기계부품·휴양,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대구·경북은 IT융복합·첨단 메디컬 등으로 특화 개발된다. 새만금·군산에는 자동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 동해안권은 금속·신소재, 충북에는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문제는 광양만권은 여수 화화단지와 광양포스코 등 기존 산업을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바이오, 신소재, 첨단 메디컬 등 신산업은 모두 빠져 있다.

또 정부의 신규 지정 제한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구상 중인 신안군 일대 일해, 자은, 안좌 등 3개 지구 18.4km를 해상풍력전송단 및 해양관광거점 도시로 개발하는 서남권경제자유구역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 관통식이 열린 3일 장성군 북이면 노령터널 안에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들이 기념 터치버튼을 누린 뒤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장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북 잇는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 관통식

길이 4.3km 친환경 나뭇공법... 내년 하반기 열차 시운전

전북 정읍과 전남 장성을 잇는 노령터널(길이 4.3km)의 관통식이 열린 3일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1구간(총복 청원군 오송역~광주 송정역, 총 연장 184.5km) 노령터널 입구.

폭 13.6m·높이 9.5m의 터널 천정·벽면은 슛크리트(shotcrete·분무기로 뿌려서 사용하는 콘크리트)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터널 입구 주변엔 소나무 등 나무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터널 입구가 붕괴되면 이곳이 터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친환경적이었다. 친환경 공법인 나뭇(NATM) 공법을 이용한 덕분이다.

이 공법은 H빔·목재 등과 같은 인위적인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암반을 지지대로 이용해 터널을 파는 공사 방법이다. 나뭇 공법은 하루 두 번씩 발파해 가며 2m 가량 터널을 뚫어 나가는데, 이

를 이용해 만든 대표적인 터널이 일본 세이칸 철도 터널이다.

노령터널 전체 구간 중 나뭇 공법으로 터널을 판 구간은 모두 3950m다. 나머지 350m 구간은 비계착 공법으로 뚫은 터널이다. 이 공법은 지름 1.5m·길이 6m의 파이프를 각각 연결한 뒤 터널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을 이용해 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든 비용은 모두 890억원. 연 인원 3만8000명이 투입됐으며,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동원된 장비는 모두 2만2000대. 파낸 흙만도 무려 74만5000m³. 잠실야구장 한 곳 넓이에 70m 높으로 흙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긴 공기만큼이나 노령터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지역 19개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노령터널은 호남고속철도 1구간 최대 난

구간이었다.

지면과 터널 천장과 간격이 20m 이하 구간이 많은데다, 암반이 약해 붕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터널이 관통되면서 나머지 구간도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1구간 공정률은 67.1%.

호남본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레일·전철 전력공사·신호 및 통신공사 등 후속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열차를 투입해 시운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오영애(52) 건설처장은 "대부분 구간이 기존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돼 있다. 익산역~광주 송정역 구간도 마찬가지다. 난 공사인데도 노령터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만든 터널이다. 남은 구간도 별 탈 없이 진행해 공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뷰 9면

감사원, 고흥·해남 재해위험지역 안전조치 요구

장마철을 맞아 재해위험이 높은데도 전남 일부지역에서 배수펌프장이나 재해경보시스템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노후 시설물과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현장 점검해 56개 시설물과 97개 위험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 신금1지구 등 전국 6개 지역 배수펌프장이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역류방지장치, 비상전원 장비를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남군 사구미지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서는 재해경보시스템이 고장나 호우시에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38개 공사현장 ▲낙석 방지시설이나 옹벽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5개 급경사지 ▲토사·골재방지·독 훼손으로 집중호우 때 물 흐름이 막힐 수 있는 19개 하천·해안 등을 적발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한국에너지기술연·전기연 광주조직 설립 승인... 내년 신축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지역조직이 광주에 들어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각각 상급기관으로부터 광주지역조직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내년 관련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 연구원은 광주에 각각 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절약, 화석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에너지·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과 전력기술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난 1976년 한국전기기술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전기 산업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장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과 제080130-광-26%로

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장단,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합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당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문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매회원대상	후회(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초~7세
평 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Honggolle ₩10,800

베리언 까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